



[부록: 특수 청소부]



- 정차 중 특이사항 발견. [연료칸]의 연료로서 사용 후 폐기되었던 4★ 탑승객 '로라'가 직원 모집사항을 발표하던 열차 직원을 공격함.
- 직원은 목을 물어뜯겨 그 자리에서 즉사.
- '로라'를 생포해 해부 및 부검한 결과, 식사하기 전 생명반응이 한 번 크게 요동쳤던 것으로 확인. 즉, 호수에 던져지기 전 유의미한 인체변화의 양상을 보임.
- 관리자들이 분석한 결과, [연료칸]에서 남은 영혼이 소모되는 과정에서 이성을 잃고 변이된 것으로 확인됨. 준비되지 않은 교도가 그 분을 접촉했을 때 정신이 붕괴되는 현상과 동일함.
-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시체들을[깽데기]라고 명명.
영혼이 소모되기 전에 정신이 먼저 소모되었기에 발생한 현상임.
- 호수에서 빠져나온 후의 다음 정차역에서 이와 같은 [깽데기들]이 다수 보고됨.
- 이들을 처리하고 열차 외부에 묻은 [깽데기들]의 흔적을 제거할 인력 필요성 보고.
- **그들을 '특수 청소부'로 명명하며, 50칸 마다 2명을 배치해 운용하는 것으로 결정.**

